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지맵)은 디지털아트컬처랩 전시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1 A.C.E작 '정월대보름 -달 아래 온정을 품다' 2 헤이즐 작 '빛 고을의 자취'



'광주, 빛을 품다'

'정월대보름-달 아래 온정을 품다'(A.C.E)는 정월대보름을 즐기던 선조들의 풍속, 역사를 재현한 콘텐츠다. '행려풍속도 8곡 병풍'과 심장생도를 활용해 다채로우면서도 임팩트있게 구성했다. 예전만큼 정월대보름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중요한 명절로 남아 있다.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작품은 빈번하지만 풍성하고 즐거웠던 선조들의 정월대보름을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풀어냈다. 오늘의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시대 나름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모두 8개의 장면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당대 문화를 빛과 기술, 아트를 입혀 형상화했다.

광주 지맵(센터장 이경호·G. MAP)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중인 '2024 디지털아트 컬처랩' 전시 '광주, 빛을 품다'전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쇼케이스는 지난 13-15일 성황리에 펼쳐진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컬처랩 프로그램 참가자의 성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역을 포함한 전국 디지털 아티스트 신진작가(프로젝트랩) 10개 팀과 작가를 꿈꾸는 8개 팀(인큐베이팅)의 개성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아트 컬처랩은 올해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선정 10주년과 맞물려 의미가 있다. 디지털 글로벌 창작자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구상에 따라 창작자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키네틱아트, 아나몰픽 아트, 사운드

지맵, '디지털아트 컬처랩' 전국 디지털 아티스트 10개팀 키네틱아트·아나몰픽 아트 등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펼쳐낸다. 이경호 센터장은 "컬처랩은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별로

모두 5가지 랩이 포함돼 있다"며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으로 구성돼 각기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컬처랩 사업을 매개로 미디어아트 창작자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미디어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 미래 예술가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LG헬로비전, 닷

밀, 사일로랩 등 문화 예술 전문기업 임직원이 컬처랩 프로그램 멘토로 참여했다.

코아시스 작 '바늘 구멍을 통과한 빛'은 프로젝트 맵핑으로 구현된 역사적 맥락을 드러낸다. 세종의 '규표'(바늘구멍 사진기), 실학자 정약용의 '칠실파려안'(카메라 옵스큐라)을 빛고를 광주의 평화와 예술적 메시지로 상징화한다.

관객들은 '칠실파려안' 앞에 놓인 세종의 의자에 앉아 VR로 구현된 시공간을 넘나드는 빛들의 주인공이 된다.

예술공공의 작품 '우리는 무엇을 불까요?'는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몰입형 경험을 전달한다. 관객은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를 매개로 공간 속 무형의 존재를 만난다. 이때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착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경험한다.

한편 이번 결과물은 창의벨트 및 광주시가 주관하는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존재하지만 감춰진 '조커'가 던지는 의미

레드기저 그림전, 내년 3월 11일까지 드영미술관

인간 사회는 구조적으로 주인공과 주변인들로 나뉜다. 주인공은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주변인들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주류와 비주류,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카드 게임에 '조커'라는 카드가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카드를 일컫는다. 몇 년 전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문구가 회자된 적이 있다. 일등 외에는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하는 세상의 부조리한 면을 꼬집었다.

사실 계급사회에서 조커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주군의 명령을 수행하는 또는 교묘히 왜곡해 자신의 뜻을 펴기도 했다.

'조커'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레드기저가 드영미술관에서 내년 3월 11일까지 그림전 'My JOKER'를 선보인다.

그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My JOKER'로 잡은 것에 대해 "레드 기저에 깃든 초심을 My JOKER로 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며 "가볍게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저마다 마음 속에 있는 JOKER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춰진 존재인 조커의 의미를 사유해볼 수 있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WHITE-FLARE'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은 모두 18점. 'white flare'는 붉은색 바탕 위에 흰색의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붉은 불꽃이 아닌 흰색의 불꽃은 보는 이에게 강렬함보다는 투명함, 편안함을 준다.



'RED-TIGER'

다른 작품 'Red Tiger'는 어느 호랑이의 그것과 다르다. 눈은 강한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데 이글거리는 눈빛은 노란색이다. 마치 자동차 라이트가 켜진 느낌이다.

작가는 "동물 중에서 호랑이가 가장 멋있어요"라며 "호랑이 눈에서부터 뿜어져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레드기저는 상명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본부 전시기획팀에서 근무했다.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강의했으며 지금까지 3회 그림개인전을 열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과 미술의 만남 '조선미술사'

2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남녀노소 모두 사랑하는 미술에 한국적 색채를 가미한 '조선 미술사'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광주시 서구가 국악매직컬 '조선미술사'를 오는 22일 오후 2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간절한 꿈, 부모님을 향한 사랑 등 주제를 스토리텔링에 녹였다.

조선의 어느 마을, 매일 밤 홀로 달을 바라보는 소년 '경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린다. 그림에도 순수한 소망을 품고 꿈을 키워가던 경재가 특별한 미술을 준비해 마을 사람들(관객)을 놀라게 한다.

오프닝 공연은 '샌드아트'로 삭막한 도시에서 경재가 벗어나 수백 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모래로 표현한다. 이어 '별을 닮은 연' 코너에서는 달빛 가득한 언덕 위에서 작은 실연을 날리는 경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팽과리를 치거나 배나를 돌리는 등 각종 연희 놀이를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 나서는 장면은 '잘하는 것' 프로그램에 담긴다.

경재는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고 미술을 연습한다. 경재가 자신감을 갖고 대중앞에 미술을 선보이는 '조선미술사'도 준비돼 있다. 장터에서 산 계란과 비단을 활용해 구경꾼의 환호를 받지만, 경재의 진정한 소원은 여경호 하늘을 나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이 고른 한복과 정성스레 만든 탈로 새로운 미술을 선사하는 '달빛 약속', 관객과



'조선 미술사' 공연 장면. (빛고을국악전수관 제공)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최후의 미술을 보여 주는 '하늘빛 그리움'도 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류효진 학예연구사는 "보자기, 음식, 연 등 친근한 사물을 이용해 선보이는 미술은 성인과 어린이 관객 모두 즐기기에 좋은 것이다"며 "미술에 한국의 정체성을 녹여낸 이번 공연이 잠시나마 관객들을 웃음 짓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연 독주회 'Classicism'

1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호남예술제 출신 피아니스트 김연은 금호주니어 콘서트, 광주약회 청소년음악회를 비롯해 광주시향 협연자 오디션 등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독일 Lepthien 피아노콩쿨(2위), 이태리 Ovada 국제콩쿨 2위(1위 없음), Vietri sul Mare 국제콩쿨 Merit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음악계에서 연주자로서 입지를 굳혀왔다.

피아니스트 김연 독주회 'Classicism'가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바흐와 하이든,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18-19세기 곡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주)에

나엔터테인먼트가 마련했다.

바흐의 '소나타 A장조 Op.17, 5번'으로 시작한다. 이어 하이든 '소나타 50번 D장조, Hob. 16-37'을 비롯해 모차르트 '소나타 5번 G장조, K283'이 울려 퍼진다.

인터미션 후 테미는 베토벤의 '소나타 32번 c 단조, Op.111'로 장식한다. 베토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녹인 걸작으로 정교한 대위법을 사용해 격렬한 긴장감을 표현한 1악장, 다섯 개 변주로 구성된 2악장으로 이뤄진다.

한편 김 씨는 현재 광신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광주피아노아카데미, CN PIANO, GIC 클라비레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독일,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연주회를 진행했으며 슈투



피아니스트 김연. <에나엔터테인먼트 제공>

트가르트 음대 개교 1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리게티 에워드 전곡'을 연주한 바 있다.

김피아니스트는 "해마다 독주회를 선보여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고전 소나타만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조화와 명료성을 중시하며 음악의 구조, 형식이 명확하게 정의됐던 '고전주의' 음악을 시대순으로 연주하며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고 했다.

전석 1만원. (주)에나엔터테인먼트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토기와 토우 특별전 연계 교육

내년 1월7일~23일...선착순 접수

상형토기는 '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그릇'이며 토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소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흙에 인문적 성찰을 요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에서 내년 3월 10일까지 열리는 토기와 토우 특별전 '영원한 여성,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를 연계한 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매주 화, 목, 토 오후 2시) 진행된다.

교육의 전반부는 고대인들이 먼 길을 떠나는 소중한 이에게 주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

을 맞췄다. 이후 천연점토를 활용해 일상의 순간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도 진행된다.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해야 하며 회당 30명씩 선착순 마감. 박물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지도 비치해, 전시관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선착순 600명에게 천연점토 교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최흥선 관장은 "전시된 상형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는 당대 사람들의 또 다른 형태의 명징한 기록이다"며 "이번 연계 교육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이 고대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다채롭게 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